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8.10.4.(목) 12:30	배포일시	'18.10.2.(화) 15:00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나채목 과장, 이선아 사무관(02-397-1350, 1323)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창출지원TF 오승철 단장(044-203-5181) 배성준 서기관, 신유철 사무관(044-203-5180, 5182)		

기업은 투자를! 정부는 지원을!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 10.4. 제8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민간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동력 창출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10월 4일 10시 40분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었음

※ 안건은 별도 배포

○ 특히 이번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되었음

Indus

[의결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 **(추진 배경)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

□ **(추진방향)**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망 분야(5개)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주력산업 분야: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

(신산업 분야: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

□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현황)**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 발굴**

○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22년) >

구분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계
프로젝트	19건	15건	9건	71건 (건설) 65+공공기관/軍 (스마트에너지) 4건	27건	**140여개**
투자	5조원	96조원	8.2조원	12.8조원	2.7조원	**124.9조원**
일자리	4,600개	1.1만개	1.1만개	6.1만개	4,800개	**9.2만개**

○ **(프로젝트 분석)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 '19년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 **70%가 非수도권**에서 투자(非수도권 98건, 수도권 43건)

○ **(일자리 효과)**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2만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22년까지 10.7만개 창출 전망**

*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의 합산(파생되는 간접 고용은 미포함)

□ **(정부 지원방향)**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 유도

□ **(분야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❶ **(미래차)**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

⇨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 계획

○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 창출**

* 전기차/수소차 보급(누적) : ('18년) 5.6만대 / 923대 → ('22) 35만대 / 1.6만대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 ('18) 3.1만대 / 746대 → ('19) 3.3만대 / 2,000대

○ 이와 함께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하여 **충전 불편 해소('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 각각 1만기, 310기 구축)**

*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19.上), 국공유지 內 설치시 임대료 감면('19.上) 등
**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생산→운송→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 일괄 개선(개발제한구역내 개질기 설치, 운반차량 압력기준 상향 등 4건, '18.9~'19.1Q)
*** 전기차 충전사업자 수: ('17)20개→('22 전망)100개 / 수소충전 민간SPC 설립 예정('18.11)

※ 미래차 관련 보조금('19년 정부안): 5,383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18, 3,523억원 → '19, 4,573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18, 186억원 → 810억원)]

❷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 투자** 계획

* (예) S社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상수원 입지 인허가 '18.9월 완료 → 연내 착공 예정

Indus

❸ **(사물인터넷(IoT) 가전)** 스마트홈에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하여 **실증 지원 강화**

* 공동주택비율('16) : 韓 75%, 美 35%, 日 10% / 국내 인터넷보급률 : 99.2%

⇨ 주요 가전사 등이 '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 투자** 계획

○ 이를 위해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

*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 조성
** 에너지관리 서비스('19~'21)→사회·복지 서비스('20~'22)(맞춤형 방범, 노인 돌보미 등)

❹ **(에너지신산업)**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1], 입지규제 개선[2], 주민수용성 제고[3] 및 계통연계 해결[4]** 등 밀착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 유도

1) 주민수용성 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법령 개정 不要 적극적 행정행위)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60여개 프로젝트 적용 검토) : (기존) 1~2년 → (개선) 6개월

2)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 연장(최대 8→20년, 연내),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최대 10→20년, 연내) 등 3건

3)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19년 전기사업법 개정)

4) 계통연계 취약지역 공용접속망 확충(한전)

⇨ SPC, 발전사업자 등이 '22년까지 67개 프로젝트(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 + 軍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9.8조원 투자** 계획

○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실증** 등 지원 추진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 **3조원 투자** 계획

** 국민 DR시장 참여요건 엄격(최소 의무감축용량 2MW 》 4인 가족 평균 전력사용량 0.35MW) → 최소 의무감축용량 축소(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19.2Q)

❺ **(바이오·헬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에 중점

⇨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7조원 투자** 계획

○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

*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하는 방식

**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19.上),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18.4분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심의 후 고시개정 추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비즈니스 창출(100건) 및 실증(25건) 지원

○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도입**('19)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 확대

□ **(상생생태계 활성화 지원)**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적극 지원

분 야	주요 내용
미래차	ㅇ 사업전환: 내연기관 협력사의 전기·수소차 부품개발 지원 * ('19) 295억원 → ('20~) 1,800억원(예타 진행중) ㅇ 자율차 생태계 조성: 9대 핵심부품 국산화(~'21, 1,450억원) * 32개 중소·중견기업 참여
반도체·디스플레이	ㅇ 대기업 양산라인 테스트베드 활용: 中企 소재장비 성능평가 지원(500건, ~'22) → 200개 이상 국산 장비·소재 Track record 확보 ㅇ 상생펀드(1.4조원) 조성·지원
IoT가전	ㅇ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 '22년까지 1,000개 중소·중견 가전사 활용 * IoT플랫폼 개방 대기업 확대 (現 1개 → 5개社, '18년말) ㅇ 중소가전사·부품사 기술개발 지원(1,063억원, ~'22) * 스마트가전, IoT 센서·소자, 홈서비스 로봇 등
에너지신산업	ㅇ 태양광·풍력 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지원 * (단기) 단가저감형(태양광), 기술추격형(풍력) R&D (중장기) Post-실리콘, Multi-type 터빈 등 차세대 혁신제품 ** 재생에너지 R&D 예산 : ('18) 2,079억원 → ('19 정부안) 2,179억원
바이오·헬스	ㅇ 중소·벤처 보유 혁신신약 기술(IP)의 사업화 지원 * 글로벌 선도형 바이오 IP경쟁력 강화 촉진사업(예타 진행 중): '20-'29, 7,800억원

Indus

□ **(향후 계획)**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 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

* '19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 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 추진

**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사업(30개)의 '19년 예산규모가 '18년 대비 30.6% 증가 (1조 7,726억원, 정부안 기준)

[발표 : 신산업 투자·일자리창출 성공사례]

□ **(주력산업 분야) ㈜세코닉스**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휴대폰·차량용 카메라 모듈 생산 국내 1위 **㈜세코닉스**는 현재 1,080명을 고용 중이며, **자율주행차 카메라 센서**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설비·R&D 투자,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

○ 또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 채용**을 위해 연차사용캠페인, 유급 출산휴가, 남직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워라밸')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신산업 분야) ㈜셀트리온**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바이오시밀러 분야 국내 선도 업체인 **㈜셀트리온**은 정부의 **세액 공제** 및 **R&D 지원**을 받고, 총 4천 3백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563명을 고용 중**이며 **대규모**로 **청년**을 **채용**(신규 채용자 중 88.9%)

○ 또한, 계약직 75명 정규직 전환, 주 평균 48시간 근로,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 개선**에도 노력 중

붙임 1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 : **'18. 10. 4.(목) 10:40 ~ 11:40**

□ **장소** : SK하이닉스 청주공장

□ **참석**

○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이목희)**

○ **(당연직, 15명)** 11개 중앙부처의 장*,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기재·과기정통·산업·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행안·노동·여가 차관 등

○ **(위촉직, 12명)** 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6명

※ 그 외 관련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 폴리텍대학·마이스터고 재학생 등 토론자로 참여

□ **의결 안건**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Indus

붙임 2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요약]

I. 추진배경

□ **(배경)**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고용회복 선도**

□ **(추진방향)** 우리의 **제조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 등을 고려, **유망 분야**(5개) 중심으로 일자리 확산

○ **(주력산업 분야 : 3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고도화**(미래차, 반·디, IoT가전)

○ **(신산업 분야 : 2개)**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 **민간이 혁신성장 투자·일자리 창출 주도**, 정부는 **Support Tower**

II.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현황 및 지원방향

□ **(발굴 현황)** 유망 분야 중심으로 **140여개 투자 프로젝트** 발굴 **(투자 125조원, 일자리 9.2만개)**

구분	미래차	반·디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계
프로젝트	19건	15건	9건	**(건설)** 65+공공기관/軍 **(스마트에너지)** 4건	27건	**140여개**
투자	5조원	96조원	8.2조원	12.8조원	2.7조원	**124.9조원**
일자리	4,600개	1.1만개	1.1만개	6.1만개	4,800개	**9.2만개**

○ (주체별) **중소·중견기업·SPC 등 65%**

* 중소·중견기업 34%(48건), SPC·조합 31%(44건), 대기업 15%(21건), 공기업 20%(28건)

○ (시기별) **내년까지 74% 착공**(진행中 51건, '18년內 착공 10건, '19년 44건)

○ (지역별) **수도권 30%**(43건)**, 非수도권 70%**(98건)

□ **(정부 지원방향)** 프로젝트 적기 투자 이행을 위한 맞춤형 밀착 지원

○ **(투자애로 해결)** 신속 인·허가, 규제·제도 개선, 산업인프라(전력, 입지 등) 적기 공급, 주민수용성 확보 등

○ **(시장 창출 지원)** 시범·실증사업, 초기시장 창출(보조금, 공공수요)

○ **(상생생태계 강화)** 대기업 유무형 자산 활용, 기술개발, 사업전환 지원 등

III. 프로젝트 지원방안

1. 주력산업 분야

1 미래차

□ **(주요 프로젝트)**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2년까지 **19건**, **5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600개 창출**

○ **(전기차)** 초소형전기차(C社), 배터리 분리막(S社) 등 생산설비 투자

○ **(수소차)** 충전 SPC, 수소버스 공장(H社), 스택공장(M社)

○ **(자율차)** 자율주행·자동주차 기술개발(H社, D社, M社)

□ **(지원 방안)**

○ **(전기·수소차 초기 시장수요 확보)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 등을 통해 **'22년까지 5배 이상 시장 창출(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6만대 보급)**

*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 확대: ('18) 3.1만대/746대 → ('19) 3.3만대/2,000대
**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확대: ('18) 70% → ('20) 100%(4,000대)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 등 5대 도시 수소버스 도입(~'22년 1천대)

○ **(충전인프라 확충)** 민간사업자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 제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충전기 1만기·310기 구축(~'22)**

* 전기충전소 옥외광고 허용('19.上, 행안부), 국공유지 內 설치시 임대료 감면('19.上, 기재부·산업부) / 수소충전 민간SPC('18.11 설립)에 충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 등

-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생산→운송→충전소 설치 등 **단계별 규제 일괄 개선**(4건, '18.9~'19.1Q)

❶수소 생산	❷수소 운송	❸충전소 설치前	❹충전소 설치
개발제한구역 內 CNG 개질기 설치허용	운반차량 용기용량 및 압력기준 상향	개질기-충전설비간 이격거리(4.5~8m) 완화	이동식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18.12)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19.3)	고압가스법 상세기준 개정('19.1Q)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특례고시 개정('18.9)

※ 미래차 관련 보조금('19년안): 5,383억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18, 3,523억원 → '19, 4,573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18, 186억원 → 810억원)]

Indus

○ **(자율차 기술자립화 지원)** 수입의존도 90% 이상인 **9대 핵심부품 국산화 R&D 지원**(~'21), 자율주행 **시범사업***('19.6월) 등

* 자율차 경진대회('18.11월), 자율주행 시범운행('19.6월, 서울대공원·대학캠퍼스 등)

2 반도체·디스플레이

□ **(주요 프로젝트) 15건, 96조원** 투자, **일자리 1.1만개** 창출

○ **반도체** 고도화 생산라인 증설(S社, H社), **디스플레이** 10.5세대 등 OLED라인 증설(L社, S社) 등

□ **(지원 방안)**

○ **(적기투자 밀착 지원)**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전력선로 등) 확충 및 **세제 지원**

* (H社) 상수원 입지 인허가('18.9 완료, 환경부) → 연내 착공
(L社, S社)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18년 조특법 개정 추진)

○ **(후방산업 낙수효과 제고) 대기업 양산 라인 활용** 中企 소재·장비 **성능평가 확대**(年 10→100건), **상생펀드***로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 지원

* 대기업이 참여하는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천억원 조성
** 장비 국산화율 목표('17→'22): 반도체 20→30%, 디스플레이 70%→80%

○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 반도체 설계툴·시제품제작 등 **창업 지원****

* '20~'29년 1.5조원 투자 추진 /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18.7.31)

3 IoT가전*

*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기기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하여 홈네트웍이 가능한 전자기기

□ **(주요 프로젝트)** 가전사 등이 **'22년까지 9건, 8.2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1.1만개** 창출

○ IoT 기반 스마트홈 등 **R&D 및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L社, S社), 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C社) 등

□ **(지원 방안)**

○ **(스마트홈 서비스 BM 창출 지원)**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 지원****

* '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 조성(누적): ('18.12)100→('20)2,000→('22)1만
** 에너지관리 서비스('19~'21)→사회·복지 서비스('20~'22)(맞춤형 방범, 노인 돌보미 등)

○ **(IoT가전 상생협력 생태계 활성화)** 중소·중견 가전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 확대**(現 S社→ L·K 등 5개社, '18년말)

* IoT플랫폼 활용 중소기업(누적) : ('18) 200개 → ('19) 500개 → ('22) 1,000개

→ 자체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가전사의 시장참여 확대**

2. 신산업 분야

1 에너지신산업*

* ❶태양광·풍력 등 발전시설 **건설** 및 ❷관련 부품·장비 **제조**, ❸스마트에너지 **서비스** (가상발전소(VPP)·국민DR 등 전력중개거래, ESS·P2G·V2G 등 에너지저장)

□ **(주요 프로젝트)**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2년까지 **71건**, **12.8조원** 투자, **일자리*** **6.1만개** 창출

* 태양광·풍력 건설·운영인력, 핵심부품 생산·연구인력, 전력중개거래 사업자 등

○ **(건설)** ❶**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일자리 5.8만개)
❷**공공기관**(1,870개소)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일자리 595개)
❸**軍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일자리 1,400개)

* '18년 4건(건설 中 2), '19년 31건 신규 착공 추진(국가산단, 새만금, 신안 등)
** '30년까지 연간 軍 전력사용량의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전력거래·에너지저장** 분야 다수 프로젝트

* K社, S社, L社, H社 등 '22년까지 3조원 투자, 일자리 1,200개 창출 지원

□ **(지원 방안)**

○ **(건설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범부처 **규제혁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선제적 해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법령개정 不要 적극적 행정행위) 적용으로 인허가 절차·기간 단축(60여개 프로젝트 적용 검토) : (기존) 1~2년 → (개선) 6개월

Indus

** 염해간척농지 사용 허가기간 연장(최대 8→20년, 연내, 농림부),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 연장(최대 10→20년, 연내, 산업부) 등
***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발전사업허가 前 환경영향평가 실시('19년 전기사업법 개정)
**** 계통연계 취약지역 공용접속망 확충(한전)

○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실증 지원) 전력 중개거래**(국민 DR 등) **시범사업***, **ESS·P2G·V2G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IoT가전(에어컨·냉장고 등) 활용 국민DR 시범사업('18.6~)

2 바이오·헬스*

* ❶헬스케어, ❷신약, ❸의료기기

□ **(주요 프로젝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7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 창출

○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BM 개발(N社 등 7개사, 530개)

○ **(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증설(S·D·M社, 1,285개)

□ **(지원 방안)**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 지원)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 및 **新비즈니스* 실증** 지원(25건, ~'22)

* MRI·CT영상 판독 AI의료기기, AI기반 신약물질 도출, 체중관리서비스 등

-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채택**(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 내에서만 보유)**

*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하여 외부에서 개별 환자정보에 접근 불가(개인 의료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의료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행안부,'18.4Q) 및 건강정보에 관한 후속입법 추진(복지부,'19~)

- (非의료)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 유전체 분석항목 확대(現 12개)** 등 **제도 개선**

* 매뉴얼 마련('18.4Q)→의료법 유권해석('19.上, 복지부)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심의('18.4Q)

○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후보물질 발굴~임상시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 범부처공동신약개발('20~, 1조원), cGMP급 백신 위탁생산전문시설 건립(~'21, 1,244억원)

-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도입('19~, 250억원)으로 국산 의료기기 수요기반 확충

Ⅳ. 기대효과

□ '22년까지 ❶**민간 투자프로젝트(140여개) 일자리 9.2만개** 및 ❷**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총 10.7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❶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 9.2만여개

구분(프로젝트수)		'18년	'19년	'20~'22년	합계
미래차 (19)	전기차(11)	50여개	380여개	250여개	**690여개**
	수소차(5)	20개	20개	1,440개	**1,480개**
	자율주행차(3)	480개	480개	1,440개	**2,400개**
	소계	550여개	880여개	3,130여개	**4,570개**
반·디(15)	반도체(10)*	1,040개	2,160개	4,340개	**7,540개**
	디스플레이(5)	1,100개	1,500개	1,100개	**3,700여개**
	소계	2,140개	3,660개	5,440개	**11,240개**
IoT가전(9)		1,830개	2,320개	6,400개	**10,550개**
에너지신산업 (71)	재생에너지(67)	3,040여개	9,570여개	47,370여개	**59,990여개**
	스마트에너지(4)	220개	260개	720개	**1,200개**
	소계	3,260여개	9,830여개	48,090여개	**61,190여개**
바이오헬스(27)		1,170개	1,260개	2,340개	**4,770개**
계(141)		**8,960개**	**17,950여개**	**65,400여개**	**92,320여개**

* '18년 이전 착공 또는 '22년 이후 완공 프로젝트 포함

❷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 1.5만개

지원 정책	'18년	'19년	'20~'22년	합계
신산업 R&D 투자*	810여개	1,860여개	5,810여개	**8,490여개**
보급 등 기타**	1,280여개	1,290개	3,870개	**6,440여개**
계	2,100개	3,150여개	9,680여개	**14,940여개**

* 산업부 R&D예산 中 신산업 투자비중 확대 추진 [('18년) 30%(0.9조원) → ('22년) 50%(1.5조원)]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非R&D), 자동차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 **향후 민간의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지원**하여 유망 분야에서 **'22년까지 목표치인 20만개 일자리 창출 달성** 추진

Indus

참고 1 현재 발굴된 주요 투자 프로젝트

분야		기업	프로젝트명	일자리	핵심 지원방안
미래차	전기차	S社	증평 배터리분리막 생산라인 증설	270개	❶보조금, 공공수요 등으로 **초기시장 창출** ❷SPC 등 민간 충전사업자의 **투자부담 완화**
		C社	신소재 배터리 양극재 설비 투자	100개	
		P社	배터리 음극재 설비 투자	80개	
	수소차	SPC	수소충전 SPC 설립	200개	
		H社	수소버스 생산공장 증설	260개	
		M社	스택공장 증설	400개	
	자율주행차	H社	level3 자율주행 기술개발·생산	年 300개	❸**핵심기술 국산화 R&D 및 실증인프라 확충**
		M社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주차 시스템 개발	年 100개	
		M社		年 8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S社	생산라인 증설 2건	-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 **투자애로 One-stop 지원**
		S社	생산라인 증설 2건		
	디스플레이	L社	OLED라인 증설 2건		
		S社	OLED라인 증설 1건		
		D社	OLED 소재 연구센터		
IoT가전		L社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기술개발	5,000개	대규모 실증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출시 지원**
			창원공장 생산시설 고도화 투자		
		C社	AI/스마트홈 연계 신제품 개발, 충남공장 생산라인 증설	40개	
		W社	신제품(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개발	150개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SPC	영암 상생협력 태양광	5.8만개*	❶계통연계, 수용성제고, 인허가 등 **애로사항 맞춤지원** ❷R&D·실증 등 **재생에너지 제조산업 육성**
		산단 입주기업	김해 국가산단 등 지붕태양광		
		추후 선정	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추후 선정	신안 주민주도형 태양광		
		산업부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프로젝트	600개	
		산업국방부	軍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400개	
		소계	65개 프로젝트 + 공공기관/軍	6만개	
	스마트에너지	K社 등	전력 중개거래시스템(VPP)	200개	❸**新서비스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 및 규제개선
		S社 등	IoT가전 활용 국민DR	150개	
		L社 등	ESS 및 P2G	550개	
		H社 등	전기차 V2G 서비스	300개	
바이오헬스	헬스케어서비스	N社 등 7개사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	530개	❶**빅데이터 구축 및 新서비스 실증** ❷신약·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의약품	S社	인천 송도 3공장 증설	525개	
		D社	당뇨 치료제 개발 등	380개	
		M社	보톡스 신제품 개발	570개	
	의료기기	I社	혈당 측정기 개발	156개	
		D社	이동형 X-ray 촬영시스템 개발	130개	
		O社	인공치근 제작용 세라믹 등 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860개	

* 대규모 프로젝트(5GW)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합계(65개 후보 프로젝트 발굴)

참고 2 주요 추진계획(안)

□ **규제혁신** 관련 법령 등 **규정 개정**('19년 상반기까지 13건 개선 추진)

구분		과제	개정 규정	소관	일정
미래차	수소충전	**(생산)개발제한구역內 CNG 개질기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토부	'18.12
		(운송) 운반차량 용기용량 및 압력기준 상향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상세기준	산업부	'19.3
		(충전소 설치前)개질기-CNG 충전설비간 이격거리 완화	고압가스법 상세기준	산업부	'19.1Q
		(충전소 설치)이동식 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특례고시	산업부	'18.9
	전기충전	**충전소 옥외광고 허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행안부	'19.1Q
		국공유지 內 충전기 설치시 임대료 감면	환친차법(9월 의원발의)	산업부	'19.2Q
			국유재산특례법	기재부	'19.2Q
에너지신산업	재생에너지	**염해간척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 연장**(8→20년)	농지법	농림부	'18.12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10→20년)	신재생법	산업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인접토지 공시지가→설비용량 요소 도입)	공유수면법 시행령·시행규칙	해수부	
	스마트에너지	**DR시장 참여요건 완화**	전력시장운영규칙	산업부	'19.2Q
바이오·헬스		**사회적 논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범위 구체화**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안부 복지부	'18.4Q~
		(非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료행위 구분기준 명확화	매뉴얼 마련, 의료법 유권해석	복지부	'19..上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진)	유전자검사 항목 고시	복지부	'18.4Q(국회위 상황)

□ R&D·실증·보급·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30개) '19년 예산 확대**

○ '18년(1조 3,570억원) 대비 '19년 예산(1조 7,726억원) **30.6% 증가**(+4,156억원)

분야	사업수	'18년	'19년(정부안)
미래차	**10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5,034억원	**6,935억원** (+1,901억, +37.8%)
반도체·디스플레이	**2개** (차세대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	**150억원** (+150억)
IoT가전	**6개** (IoT기반 스마트홈실증형 기술개발 사업 등)	282억원	**301억원** (+19억, +6.7%)
에너지신산업	**6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7,709억원	**9,526억원** (+1,817억, +23.6%)
바이오·헬스	**6개**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545억원	**814억원** (+269억, +49.4%)
합계	**30개**	**1조 3,570억원**	**1조 7,726억원** (+4,156억, +30.6%)